"1인가구·욜로족을 잡아라"

백화점 문화센터, 나홀로 인테리어 등 이색강좌 마련

유명인 초청 인문학·자기 계발 등 프리미엄 특강도

지역 유통업계 문화센터가 신 소비층으로 떠오른 1인 가구와 욜로족(YOLO)을 겨냥한 여름학기 강좌를 마련했다. 욜로(YOLO)족은 '당신의 인생은 딱 한 번뿐'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자신의 행복을 위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오늘 6월 13일(화)까지 여름 학기 신규 회원 강좌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여름학기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테마를 기획해 최근 사회적 변화를 강좌로 개설했다.

1인 가구들을 위한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간편한 한끼 혼밥, 8접 반상 간편 집밥, 8일 다이어트 샐러드 강좌 등을 신설했다. 욜로 라이프를 위한 나홀로 인테리어 연출, 나만의 팝아트, 나홀로 여행하기 등 삶의 휴식, 이색 강좌를 마련했다.

여름학기 명사특강은 소통전문 강사인 김장옥 대표가 '관계회복 소통 테라피', 윤영미 아나운서의 '언테크로 성공하라' 등을 기획했다.

이외에도 재테크 전문인으로 부터 듣는 생활경제, 조대치대병원 교수진들과 함께 하는 전문의 특강 등 다양한 강좌들을 준비했다.

이번 여름학기는 가족과 직장인을 위한 1회 실속강좌를 봄 학기보다 30% 늘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도 여름학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클래식과 인문학, 가족단위 이색체험, 자기계발 등 350개 강좌를 마련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유명 인사를 초청하는 '특별 초대 강좌'에서는 '나를 믿어주는 단 한사람의 힘' 저자 박상미 작가 '여자, 인생의 판을 바꿔라' 저자 이은주 작가를 초청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화의 기술, 공감의 기술 등을 이야기 한다.

6월에는 김미경 스타강사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꿈으로 성장하고 운명으로 단단해져라'라는 주제로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다.

어린이를 위한 여름방학 체험 특강도 준비됐다. 한국가정경제교육협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 경제교육,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유물로 보는 한국사, 아빠와 함께 드론을 만들어 보는 강좌도 준비했다.

반려견 1,000만시대에 맞춘 반려견 아로마테라피 강좌, 내가 직접만드는 원목가구, 감성 우퇴근 후 취미활동을 찾는 직장인들을 위해 '지니로니 통기타 교실', '플룻 기초교실' 등 다양한 직장인 특강과 셀프뷰티족을 위한 요가, 발레, 다이어트댄스 등 재미와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강좌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이우옥 문화센터장은 "기존 인기 강좌 외에도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문성 있고 유익한 강좌를 개설해 실속 있는 교육과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학기 강좌를 준비했다"며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앞장서 소규모 문화모임, 발표회 등 각종 문화 동호회 모임 장소 제공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백화점 여름학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신세계 아카데미(www.shinsegae.com, 062-360-1500)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 (http://culture.lotteshopping.com, 062-221-181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aT, 5월의 제철농산물에 '양배추'

전남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속 하향 안정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5월의 제철 농수산물로 양배추를 선정했다.

양배추는 유황과 염소 성분이 위장 점막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손상된 위를 재생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성분은 단백질과 지방의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체내 단백질 합성과 간 지방 관리에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양배추 품종이 개발됐는데 이 가운데 방울양배추가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긴 줄기에 여러 개가 붙어 자라는 방울양배추는 기존의 양배추보다 식감이 부드럽고 단맛이 강하며 이외에도 붉은 색을 띄는 적양배추는 노화억제 및 질병예방에 좋은 항산화작용을 활성화시킨다.

일반적으로 5~7월 사이에 수확되는 양배추 무게는 3㎏ 내외인데 크기보다 무거워야 속이 잘 여문 상품이며 겉잎이 깨끗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좋은 양배추다.

양배추는 냉장 또는 냉동보관을 권장하는데 냉장고에서는 2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보관할 때는 아래쪽 뿌리 부분의 가운데 심을 제거한 후 신문지로 싸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상온에 보존할 경우에는 5일 이내로 섭취해야 하며 또한 냉동 보관할 경우 그대로 채를 썰어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면 된다.

aT 박연호 유통정보부장은 "최근까지 양배추는 각종 얼갈이배추나 열무와 같은 봄작물의 출하로 인해 수요가 분산돼 약보합세에 거래됐으나 5월 연휴와 봄 행락철을 맞아 닭갈비 등 요식업소 등의 소비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일조량 증가와 적절한 기상여건으로 전남 지방 출하량이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출하지역도 점차 확대돼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3월 전남 어업생산량 46만258t

전국 78.6% 차지…전월대비 27.4% ↑

지난 3월 전남 지역 어업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7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3월 전남도 어업 생산 동향 자료에 따르면 총 어업생산량은 46만258t으로 전년 동월 36만1,356t보다 27.4%(9만8,903t)가 증가했다.

일반해면어업과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8.9%(526t), 27.7%(9만8,339t), 6.9%(38t) 증가했다.

3월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은 전국 총 생산량 58만5,845톤의 78.6%를 차지했다. 천해양식업은 45만3,218톤으로 전국 천해양식업 생산량 52만9,187톤의 8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해면어업에서는 바지락 628톤(669.6%), 젓새우 277톤(67.4%), 병어류 63톤(238.5%) 등이 증가했다.

바지락은 산지 출하가격 상승에 따른 맨손어업의 적극적인 생산 활동, 젓새우류는 봄철 수온상승과 함께 연안으로 다시 회유해 옴에 따라 자망어업 어선의 조업 호조로 어획량이 증가했다. 병어류는 봄철 수온상승과 함께 서남해안 주변해역에 분포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강망과 쌍끌이어업 어선의 조업 호조로 어획량이 늘어났다.

천해양식어업 주요 증가 품종으로는 미역류 10만8,294(48.2%), 굴류 4,068톤(309.6%), 홍합류 1,399톤(109.8%) 등이다.

미역류는 가공용 미역 채취 물량 확대 및 양식작황 양호에 따른 전복 먹이용 채취 물량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했다. 굴류는 타 지역에 비해 비만도 및 생육상태가 양호함에 따른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홍합류는 출하가격 상승 및 패류독소 발생 전 다량 판매를 위한 조기 채취로 생산량이 늘었다.

/황애란 기자

"자금 위기, 펀딩으로 해결하세요"

중기중앙회, 15일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중소기업중앙회(박성택 회장)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을 안내하는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활용전략 설명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다. 창의적 기업가와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활용방안 안내, 성공사례 발표, 온라인중개업체와 일대일 상담 등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가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방안을 설명하며, 모헤닉 게라지스(수제자동차 제작사) 김태성 대표가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온라인(http://goo.gl/6WxQ2b)으로 접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aT가 화훼농가 판로 확보를 돕기위해 11일 꽃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가정의달 꽃단장으로 화훼농가 살리자"

aT, 화훼농가 판로확보 어려움 해소 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가 1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꽃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aT가 운영하는 이번 꽃 직거래장터는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화훼 소비를 활성화하고 가정의달을 맞춰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aT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4월말까지 화훼공판장 거래물량은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5.3%감소했고, 지난 3월까지 화원의 꽃 판매액 31.3% 감소하는 등 화훼농가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20여 화훼농가가 참여 장미, 국화, 카네이션, 다육식물, 수국 등 다양한 꽃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장터를 찾아오는 시민들은 전문 플로리스트가 진행하는 꽃다발 만들기와 꽃꽂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가정과 기업의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화병을 배송해주는 꽃 생활화 캠페인(1 Table 1 Flower) 홍보도 진행한다.

aT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우리 화훼농가에서 키운 꽃으로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꽃 선물을 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꽃 직거래장터를 찾아주셔서 예쁜 꽃도 사고, 꽃꽂이 체험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미애 기자